

자료제공 : 2023. 7. 29.(토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<p>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</p> <p>담당부서 :</p> <p>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</p> <p>사진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진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쪽수 : 3 쪽</p>	동물보호과장	이미숙	2133-7645
	동물보건팀장	배진선	2133-7651
	동물위생시험소장	노창식	570-3200
	동물질병진단팀장	강경숙	570-3435
	관련홈페이지 (메뉴)	https://animal.seoul.go.kr/	

관악소재 동물보호 장소 고양이 3마리에서 시항원(H5) 확인

- 29일 동물병원에서 의심 신고, 10마리 검사 결과 3마리에서 H5 확인
- 해당 시설 세척소독 및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, 방역상황실 전 자치구로 확대
- 미신고 민간 동물 보호 시설에 대해 현황 파악후 동물 임상예찰, 정밀검사 예정
- 민간단체, 고양이 보호 모임은 동물 보호 시설이나 쉼터 운영시 방역당국에 신고 요청
- 시, 동물 보호 시설 운영시 방역당국에 신고 당부, 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음

- 서울시는 오늘 7.29일 관악 민간 동물 보호 장소의 고양이 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5형) 의사환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 - 10마리 검사를 하였으며 이 중 3마리에서 H5형이 확인되었다.
 - 의사환축은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 또는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동물을 말한다.
- 이는 7.25일 용산 동물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2번째이다.

- 관악 동물 보호 장소 고양이는 7월 23일부터 식욕부진, 호흡기 증상이 있어 동물병원에 왔고, 진료 중에 폐사하여 동물병원장이 7.29일 방역당국에 신고했다.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H5형이 확인됐다.
- 시는 해당 시설을 세척·소독, 출입 통제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하였다.
 - 현재 방역상황실을 운영 중인 18개 자치구는 용산 기 발생지로부터 반경 10km이내 예찰지역인 자치구이다. 이번 관악에서 추가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이다.
-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미신고 민간 보호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동물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.
 - 동물보호법에 따라 민간 동물보호 시설은 신고를 유예하고 있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- 시는 동물보호 민간단체, 고양이 보호 모임 등에 동물보호소나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관할 자치구 또는 시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.
- 시는 동물 관련 시설 등에서 동물을 돌볼 때에는 마스크, 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, 동물을 만지고 나서는 손씻기를 통해 과도한 불안 보다는 개인위생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.
- 서울시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“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”며, “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과 동물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: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(질병관리청)

- 손을 자주 씻고,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.
 -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,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 등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·코·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.
 -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.
- 야생조류, 가금류, 고양이 등 사체에 접촉하지 마십시오.
 -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 및 길고양이의 경우 사체, 분변 등을 만져서는 안되며 가급적 접촉하지 마십시오.
- 가정 내에서 고양이나 새를 키우는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습니다.
 -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양이 등에게 활동량 저하·많은 양의 침 흘림, 기침과 재채기, 숨가쁨 및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, 마스크·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접촉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하여 주십시오.
- 국내·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및 지역 등에 방문하여 동물과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, 기침,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)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, 기침,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.